

## ‘제주의 여성 잠수부’ 해녀 미국에 알린다

여성 포토저널리스트 브렌다 백선우 15일 LA한국문화원서 「물 때」 소개  
2007~2009년 7개월의 시간을 바다에서 해녀와 부대끼며 쌓은 경험 결정판

등록 : 2011년 07월 12일 (화) 00:12:01  
최종수정 : 2011년 07월 12일 (화) 00:12:0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말없이 시간을 품은 얼굴이 씩없이 바다를 흔들며 살아있음을 알리는 물결과 가만히 오버랩된다. ‘해녀’다.

그녀들의 삶에 대한 진한 애착으로 점철된 포토에세이가 미국에 소개된다.

LA 한국문화원은 서울셀렉션USA와 함께 이달 15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브렌다 백선우씨(한국명 백은숙·63)의 제주 해녀 영문사진집 「Moon Tides: The Women Divers of Jeju Island」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제주에서 처음 포토에세이를 꺼내 놓았을 때 “운명(Destiny)”을 언급했던 은백의 여성 포토저널리스트가 특하고 던졌던 “그녀들을 이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약속이 바다 건너 미국에서 실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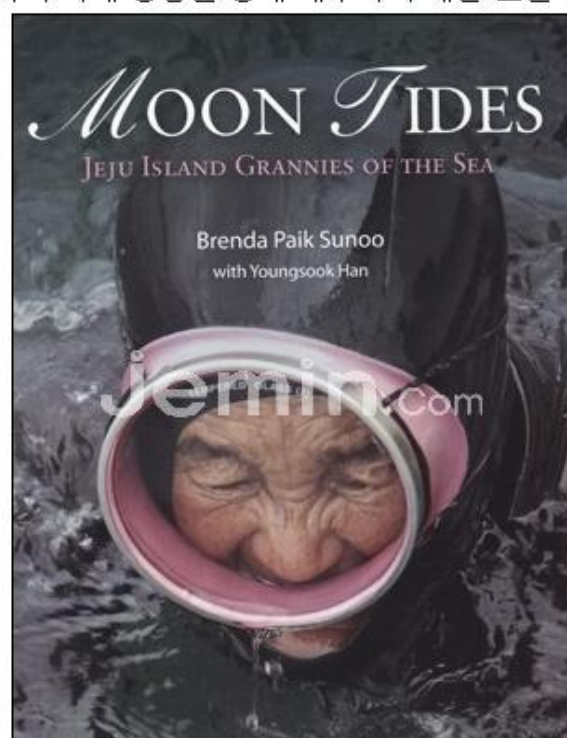
지난 2007년 제민일보 ‘제주 잠녀’기획취재팀과 수차례 동행을 통해 제주와 부대끼 브렌다 씨는 그 후로도 2009년까지 날로 계산하면 7개월간 제주 해녀와 함께 호흡했던 기록을 포토에세이에 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Moon Tides-Jeju island Grannies of the Sea」: 물 때-제주 바다의 할머니」로 소개됐지만 미국에서는 ‘제주의 여성 잠수부’로 부제가 바뀐 것이 눈에 띈다.

사라져가는 제주 해녀의 삶을 생존과 샤머니즘, 고통, 나이듦, 연민, 가족, 그리고 미래라는 일곱 가지 키워드로 23명의 인터뷰와 200컷의 사진으로 담아낸 것은 그대로다.

그녀가 ‘해녀’를 세상에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녀’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술위원회와 국제여성박물관이 후원한 사진전 ‘Picturing Power & Potential’에서 2010 커뮤니티 초이스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공감을 얻었다.



브렌다 백선우



물 때-제주 바다의 할머니

처음 '죤녀(잠녀의 제주식 발음·jomnyo)'에서 '해녀'로, 자신의 뿌리와 연관 지은 '할머니'에서 '여성 잠수부'로 바뀌는 과정은 보다 대중에 가깝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지만 조금 아쉽다.

이번 행사에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과 사진집 서명행사 외에도 현대무용가이자 안무가로 활동 중인 폐기 최의 '해녀춤' 특별공연도 펼쳐지는 등 미국에 '제주'와 '해녀'의 정체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